

외국 NGO/ NPO 활동사례 2

특정비영리활동법인 히가시네

관련기관  
코너

2

River & Culture



1. 단체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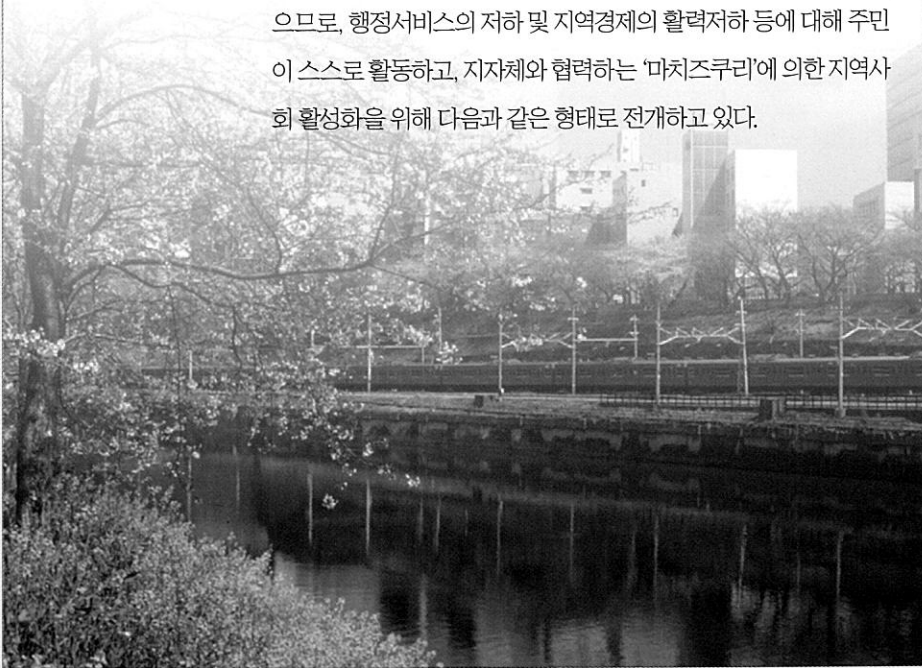


오민근 | Regional & Urban  
Creative Consultant /  
CFOG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UCCN 자문위원  
(ufo1009@hanmail.net)

NPO히가시네는 시민의 시선으로 東根市の '마치즈쿠리'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지역의 생활, 자연환경의 악화 및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노년층 세대의 경험과 지식, 젊은 사람들의 활력과 새로운 감성을 모아 '함께 살린다'라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고 있다.

2. 활동 취지

세계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도 그 변화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행정서비스의 저하 및 지역경제의 활력저하 등에 대해 주민이 스스로 활동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마치즈쿠리'에 의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http://www.npo-higashine.com>

-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정비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계
- 기업 및 지자체의 비용 삭감에 협력
- 지역자원의 유효이용
- 시민 벤처기업 창출에 의한 고용 창출

이러한 마치즈쿠리를 중심으로 지역정보의 아카이브화 및 IT를 발판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 3. 활동 분야

- **협동의 마치즈쿠리**  
지자체 및 기업에 의한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폭넓은 인재의 지적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며, 현재 東根시청 창구업무, 東根 체리도서관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지역 거주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리폼 등의 무료주택상담을 행하고 있으며, 주택상담을 받은 경우는 적절한 지원회원에게 건축 및 리폼 등을 소개하고 있다.
- **IT지원**  
홈페이지 작성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역정보를 발신하고 있으며, 또한 축적된 지역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 **환경지원**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하천청소 및 수질조사 등의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보호활동에도 대처하고, 강연회 등의 활동도 행하고 있다. 특히 친근한 하천의 미화 및 수질조사, 수생생물 관찰을 행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활동으로 야마가타현의 보조제도의 채택을 받아 지역주민과 연계한 '숲 만들기 활동'을 행하고 있다. 친근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 전원이 항상 환경지원의식을 가지고 매일 노력함으로써 지역 환경에 공헌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도의 기술 및 기능을 가진 고령자 및 퇴직자에 한하지 않고 폭넓게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4. 활동성과

NPO히가시네는 하천의 미화 및 수질조사, 수생생물 관찰을 행하여 환경보전의 의식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활동을 함으로써 야마가타현의 보조제도의 채택을 받아 지역주민과 연계한 '숲만들기 활동'을 행하고 있다.

제4회 하천청소를 白水하천부지에서 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IT, 디자인, 농가, 건축, 소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2011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환경을 주제로 한 전문참가형 연수의 일환으로서 '손으로 만드는 태양전지 패널제작(히가시네공업고등학교 공동개최)'을 행하였고,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조명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여 가로등 등의 무전선화를 지향하였다. 



2012년도 하천청소활동 및 수질조사활동

1) 마치즈쿠리(まちずくり)란, 작게는 찻집공원에서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대상이 다양하며, 그 대상을 만들고, 조성하고 창조해나가는 것이다.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치즈쿠리에서 시작하여 환경, 관광, 평생학습 등 다양한 마치즈쿠리가 전개되다가, 90년대 전후에 이러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마치즈쿠리로 전개되어 지금은 개념어로 정착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마치즈쿠리는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 전문가, 기업, NP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 마을, 가로 등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마치즈쿠리를 마을만들기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대상이 마을로 한정되어 사고와 행동변경의 범위가 제한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